

## 【 해외금융 뉴스: 중국 】

### 춘절기간 100억 위안 규모의 보험 특수 기대

□ 올해 춘절에 사상 최대의 인구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약 100억 위안(한화로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보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 추산으로 사상 최대인 연인원 25억 4,100만 명(전년동기대비 7.7% 증가)의 인구가 올해 춘절(2월 14일) 연휴기간 이동할 것으로 전망됨.
- 철도로 2억 천만 명, 차량으로 22억 7천만 명, 배와 비행기로 각각 3,200만 명과 2,894만 명의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보험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가 증가 추세에 있음.
- 최근 선편보험감독감독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춘절기간에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보험료를 1인당 평균 20위안으로 가정할 경우 잠재 보험시장 규모는 약 58억 위안에 달하고 다른 종류의 수입보험을 모두 합하면 시장규모는 100억 위안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업계는 춘절 특수를 누리기 위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춘절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핑안보험은 춘절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1만 위안 이하의 보험금일 경우 접수 다음날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일일지급(一天赔付)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자동차보험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음.
- 또한 AIA생명도 춘절기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타이칸생명은 가입자 스스로 보험료 및 보장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e종합사고보장플랜(e顺综合意外保障计划)’과 ‘e교통사고보장플랜(e顺交通工具意外保障计划)’ 등의 온라인 전용 보험을 춘절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광저우일보, 2/4)